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7년도 표어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부활절 메시지

예수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교리



이중윤목사(서울교회 담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중 어느 것이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중심 교리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신 바로 그 목적이라 할지라도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신 것들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그의 죽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되고 그 후 수세기를 지나 우리에게까지 보전되고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하시기 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신앙은 뿌리 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로 그들의 믿음은 다시 싹이 나고 구세주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하러 힘차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내용이었습니다. 부활과 함께 하는 그 첫 번째 교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주님의 신성에 대한 교리를 확증시켜줍니다.
- 셋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모든 죄로부터 의로워진다는 교리를 입증해줍니다.
- 넷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 다섯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 이 생(生)의 종국이 아님을 증거하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게 합니다.

여섯째로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최종적 심판이 임하리라는 증거도 됩니다. 복음 전도자 토레이(Reuben Torrey)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 ‘기독교가 증거하는 것들을 굳게 지켜주는 견고한 요새요 불신자들을 참패시킨 것’이라 하였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모든 교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하여 세워지며 이것 앞에서 모든 의심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고린도 전서 15:14)하셨습니다.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예수님 부활하셨다

주일예배 - 성찬식 / 찬양예배 - 찬양으로 감사

하나님은 죄인의 괴수가 되어 도무지 희망이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오늘은 이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오늘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성찬예식을 거행한다. 우리는 이 성찬을 깊은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

야한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대장 노문환 장로, 지휘 류충기 집사)가 준비한 베토벤의 오라토리오 "감람산위의 그리스도"로 온 성도가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찬양예배로 드린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부활주일이 되도록 기도한다.

선교사 추가 파송

4월15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파송식 가져

100명 이상 선교사 파송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한 분 선교사를 추가로 파송한다. 이번에 파송되는 선교사는 김종일 선교사로 백순미 사모와 슬하에 두 딸이 있으며 의정부 안디옥 외국인 교회로 파송되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김종일 선교사는 지난 번 순례자에 발표된 김웅진 목사(아프리카 말라위) 서흥위 선교사(동아시아)와 함께 다음 주일(4월15일) 찬양예배 시간에 파송식을 갖고 각각 사역지로 파송된다.

우리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들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을 통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구원받아 천국시민이 되는 은혜 누리도록 기도한다.

<김종일 선교사 약력>

- 1961년생
- 한국 외국어대 졸업
- 터키 국립 이스탄불대학 역사학 석사, 박사 학위 취득
- 영국 Wesley Theological college 신학석사 이수
- ACTS 중동선교연구원 교수

제7회 한마음 한가족 축제 열려

5월24일(목) 오전10시-안산공대 종합체육관

우리교회는 교구찬양대회와 '한마음 한가족 축제'를 매년 번갈아 가며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제7회 한마음 한가족 축제(준비위원장 임훈규 장로)로 열린다. 한마음 한가족 축제는 전교인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로 교육1국 어린이부터 장년5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마음을 열어 한마음으

로 한가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의 자리이다.

올해 제7회 한마음 한가족 축제는 안산공과대학(재단이사장 장인원 집사)에서 열린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기도한다. 한마음 한가족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은 다음과 같다.

- 대회장 이종윤 목사
- 지도: 정수길 목사
- 준비위원장 임훈규 장로
- 청팀 단장: 오정수 장로 (1-7교구)
- 응원단장: 김민철 집사
- 백팀 단장: 김광신 장로 (8-14교구)
- 응원단장: 전응식 집사

부서	부장	실행위원
기획부	노문환 장로	대청부
진행부	서문석 장로	대청부
심판부	박두호 장로	대청부
홍보부	민순규 장로	대청부
기록/시상부	김영준 장로	대청부
재정부	노송성 장로	재정부
동원부	조장식 장로	교구간사, 다락방장, 교회학교 부감
시설관리부	성준경 장로	대청부
봉사부	정병무 장로	대청부
의료부	김대호 장로	박동원, 김영주, 정철용, 김희목, 최미희, 서지영
차량안내부	최학인 장로	차량안내 위원
음악부	신용식 장로	대청부 찬양팀

서울교회 주관 육사 세례식 · 성찬식

4월11일(수) 오후6시 육사교회당에서

우리교회가 주관하는 육군사관학교 세례식 성찬식이 4월11일(수) 오후 7시 육사 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날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장병들에게 설교도 하며 성찬식을 집례한다. 이날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대장 황정임 권사, 지휘 서희숙 권사)가 선다.

장차 졸업과 함께 임관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다하게 될 이들이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면 이들을 통해 진중에서 함께 생활할 군인들이 복음화되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11일 진중세례식에 참여하는 생도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말씀 안에 거하며 거둔 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한다. 성례식을 위하여 오후 4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이번 주간

새벽기도회 · 수요일예배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드려

2층 본당 앞 로비 - 도장직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교회당 내부 도장 작업이 이번 주간 동안 2층 본당 앞 로비를 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본당에서 열리는 모든 예배 및 모임(새벽기도회, 수요일예배)이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리게 된다. 성도들이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성경 일천독 대장정 순조롭게 진행 중

-현재 1,772명 신청-

1907년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말씀운동으로 교회 부흥을 재현시키려는 열망이 온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

금년 안에 성경을 1독 이상 하겠다고 신청한 이들이 1,772명, 이들의 이름이 한반도 지도를 채울 때 복음화 된 통일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초등학생, 은퇴한 권사님, 탈북하여 온 디아스포라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통독의 열풍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시작도 못한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흥해작전 기간 동안 특별성경통독사경회도 가질 예정이다.

예수 부활

우리에게

청중의 삶



한민희(유치부)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우리가 벌 받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너무 기뻐요.



유동혁(유치부)

야! 부활절이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날이에요. 못 박힌 손과 발에서 피가 나 우리 죄가 용서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부활절은 예수님 다시 사신 날이에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최진경(대학부)

자옥한 죄 가운데 나,
피와 빛이 합하여 일으키시고
죄의 명부에서 제외시켜
새기시는 분

한 없이 돌아서는 나,
잠잠히 다가오셔 일구시고
깊은 상처의 손을 펴
건지시는 분

약함 속 흔들리는 나,
의연히 눈물로 만져주시고
함박 봉오리 핀 미소
머금으신 분

하늘 향해 가는 나,
십자가를 되세워
나, 그분을 오롯이 청종합니다.



문광연(초등부)

나는 예전부터 부활절이라고 하면 달걀을 삶아 예쁘게 꾸미는 행사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계란을 먼저 생각했다.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과 부활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하고 먹을 수 있는 달걀이 더 우리를 즐겁게 하였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신 것을 열심히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어떤 친구는 예수님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부활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기도 성도(디아스포라부)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북한체제를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후 지금은 서울교회 디아스포라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기도 성도입니다. 그렇게도 갈망했던 자유 땅인 대한민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희망과 환희에 찬 기쁨보다는 너무나도 낯설게 보이는 이곳에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 당황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사랑 속에서 서울교회로 오게 되었고 오늘은 이렇게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김일성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신 구원의 주님으로, 그래서 김일성은 하늘이 내신 위대한 수령, 영원한 태양으로 숭배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죽어서 미이라가 되어 유리관 안에 들어가 있는 김일성은 북한주민들을 기아와 질병, 굶주림에서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짙은 암흑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인생의 방향 가운데서 삶의 목적도 희망도 없었던 이 주기도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삶의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안겨주신 분은 다름 아닌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멀지 않아 우리의 고향 북한 땅에도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 날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부활을 맞으며 목청껏 저 동토의 땅인 북녘하늘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부활 하셨습니다!

부활절은...

임규현 목사(에바다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이제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기 위하여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모두

소망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꿈'과 '소망', 그리고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삼 일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셨고 믿음과 꿈과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다.

부활은 절망의 황무지 속에서 소망의 "꽃" 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청각장애

인들은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인생이기에 절망적으로 보겠지만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망입니다.

에바다부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절망에서 소망과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을 갖게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과 기쁨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들에게 전해야 하며 부활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송철호 성도(9교구)

예수를 믿고 처음 맞는 부활절입니다.

큰 이모님의 전도로 교회라는 낯선 곳에 나와 기도 찬송으로 주님을 만난 지도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36살의 청년입니다. 이것이 간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15년 이상 피웠던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작정을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은 아주 편안하게 저로 하여금 담배를 끊게 해주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담배를 피웠고, 밥 먹으면 피우고, 화장실 갈 때 피우고, 남들 피우는 거 보면 또 피우고... 그렇게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이 붕어처럼 담배를 피웠습니다. 15년 동안 수백 번, 아니 수 천 번 담배를 끊으려고 했지만 작심 3시간뿐이었

습니다. 이런 내가 교회에 두 번째 나가던 날 기적처럼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큰 이모님과 시간이 맞지 않아 혼자 3부 예배를 드리려다가 웬지 서먹한 마음이 들어 어머니에게는 3부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오려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던 중 한티 공원에 잠시 쉬어가려고 벤치에 앉아 습관처럼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처음 한 모금을 깊이 들여 마시고 하늘을 향해 연기를 내뿜을 때 서울교회 꼭대기의 십자가가 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바라보고 있었는지 한 모금 피운 담배가 필터까지 타들어와 손가락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신기한 것은 그 이후로는 담배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지만 나 자신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담배를 끊은 것은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그렇게 끊으라고 해도 못 끊던 담배를, 심지어는 담배를 못 끊는다는 이유로 몇 년 전에는 여자 친구로부터 결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주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은혜의 대상으로 무조건 주님이 믿겨졌고, 주님 안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요즘은 새가족부에서 교리 공부 시간에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해주는데 저는 담배를 안피우는 내가 꼭 죽었다가 부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전도해 주신 큰 이모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담배를 끊고 새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김광신 장로(12교구)



지금 나는 그 분이 주신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옷이 아니었지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기에 더럽고 때 묻고 찢어지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세탁하지 못했고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나를 피했습니다. 아니 세탁을 해도 흰 옷 되는 방법이 불가능하기에 세탁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는 내가 사람 구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사는 분들을 동경하였지만, 그것은 꿈같은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세마포 흰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백성의 죄를 보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만큼 옷은 유별난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뽑아이다 기도했습니다.

이제 나는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가죽 옷으로 자기를 가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화려한 옷이 아닌 구원의 옷, 찬송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옷은 희기가 눈 같아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입은 옷 같습니다. 어떤 세제로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한 옷입니다. 이 옷은 화려한 옷, 비싼 옷과 비교가 안 됩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입혀주신 제일 좋은 옷이 내 옷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강조

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려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흰 옷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렵니다. 그 때부터 Best dresser가 되어 어디를 가든지 새 우 인은 사랑처럼 감사하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



노문환 장로 (임마누엘 찬양대 대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모든 수욕을 참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온 교회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절 축하 찬양예배에 성도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모두 함께 오셔서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부활 하셨습니다"라고 목소리 높여 크게 외치는 기쁨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이렇듯
봄인 것을

자주 빛 목련 흐드러져
봄바람에
뚝뚝 떨어진다

목마른
당신의 육체
십자가 흔적처럼
피에 흠뻑젖어
망울 망울 토해낸
봄의 비명인가

심장에 고인
마지막 피 한방울
떨어지는
침묵의 소리같이

다 이루어졌다

자목련
제 몸으로
봄을 활짝 열고
피 빛 7월
뚝뚝 떨어져
갈보리 언덕에 흠날린다

이제
갈보리언덕에서
부활하신
당신이 계신 그곳
갈릴리로 가야겠다.

천국에서 만나 볼 어머니



한성옥 권사(7교구)

어머니가 천국을 가신지도 벌써 두 달이 됩니다. 8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는 가시는 그 날까지 참으로 깨끗하고 곱고 아름다우신 분이셨습니다.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어머니의 품이 너무나 그리웁습니다.

어머니는 곧 나의 고향이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86세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두고 호상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100세, 200세에 돌아가신다고 해도 육신의 정을 생각하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을 향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믿어 주며 모든 것을 덮어주고 한없는 소망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이제는 불라도 대답이 없으신 어머니! 어머니는 기독교 계통의 여학교를 다니셔서 피아노도 치시고 예배시간에 독창도 하실 만큼 노래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찬송가를 듣고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는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주를 가까

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였습니다. 팔 남매 막내로 십일 남매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신 어머니는 유교 사상이 깊은 시댁 식구들과 많은 갈등을 겪으시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뵈 때마다 어머니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면 예수님 이름 부르며 따라가세요 그 래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지금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몇 십 년을 미운 정 고운 정 들면서 살고 있지만 시어머니가 남편 박두호 장로에게 지극 정성하신 모습을 뵈 때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미하게나마 느끼게 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으사 오래 참으시며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만 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기쁨,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어머니를 다시 뵈 수 있다는 기쁨으로 저는 올 부활절의 의미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07년 홍해작전 준비 시작되다

- 이종윤 목사: 6월6일(수)-10일(주) / 김성봉 목사(신반포중앙교회): 6월11일(월)-16일(토)
- 전교인 성경통독사경회: 6월17일(주)-25일(월)

<홍해작전 기도제목>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사 51:17, 롬 13:11)을 주제로 6월6일(수)부터 6월 25일(월)까지 20일간 매일 새벽 5시, 새벽을 깨우며 진행될 홍해작전은 크게 3가지로 준비된다. 먼저 이종윤 목사의 은혜로운 새벽강단이 6일(수)부터 10일(주)까지 5일간 계속되고 이어서 김성봉 목사(신반포중앙교회)의 인도로 6월11일(월)부터 16일(토)까지 계속된 후 6월17일(주)부터 홍해작전 마지막 날인 25일(월)까지는 우리교회 교역자들의 인도로 전교인이 참여하는 성경통독사경회로 준비된다.

- 1.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자신과 가정과 민족의 홍해를 건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 2.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우리 자신과 가정과 민족의 모든 죄를 회개 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 3. 말씀과 기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일천독 대장정에 동참하여 말씀 위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여 민족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4. 우리를 충성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100만인 전도운동에 동참하여 1907년 부흥의 불길을 다시 일으켜 민족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 5.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주님**
2010년까지 교회학교 학생 일만명 이상 출석, 선교사 100명 이상 파송, 빈약한 자구제를 위한 사랑의 집을 건립하게 하옵소서.
 - 6.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 주님**
서울교회가 이웃의 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면서 향도해 나가게 하옵소서.
 - 7.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북한 동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어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게 하옵소서.
- 새벽마다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회 서울문예 백일장 개최

서울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담긴 문예 창작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서울문예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서울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유치부로부터 중고등부, 대학부,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께 응모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서울문예 백일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개최될 예정이며, 운문부와 산문부, 간증문의 3개 부문으로 합니다. 당선작은 순례자 지면을 통하여 작품 전문을 게재하고 당선자에게는 다양한 부상과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응모를 기다립니다.

1. 모집 부문 :

- (1) 운문부 - 시 3편 이상
- (2) 산문부 - 단편소설(공트), 희곡, 기타 생활수필 각 1편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 (3) 간증문 - 산문 1편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2. 대상 및 응모 자격 : 서울교회 성도

3. 원고 마감 : 2007년 4월 30일 (월)

4. 보낼 곳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서울교회 '서울문예 백일장' 담당자 앞 (문의 : 02-558-1106)

5. 당선작 발표 : 2007년 5월 5일, 서울교회 홈페이지 및 5월 6일자 <순례자>에 공고

- (1) 대상 : 0명 (운문부, 산문부, 간증문)
- (2) 최우수상 : 0명 (부분별)
- (3) 우수상 : 0명 (부분별)
- (4) 장려상 : 0명 (부분별)
- (5) 특별상 : 새싹문학상, 은빛문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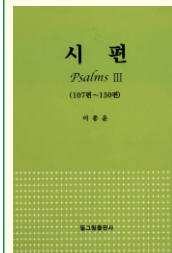
6. 응모요령

- (1) 모든 응모작은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마감 당일 우편 소인이 찍힌 응모작까지 유효합니다. 해외에서 응모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 마감일까지 nasojung@hotmail.com 로 보내주십시오.
- (2) 결봉투에 <서울문예 백일장 응모작>을 명기하고, 원고 첫 장과 맨 뒷장에 응모 부문과 응모자의 이름, 연락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교적번호, 해당 교구 및 소속 부서를 기재해 주십시오.
- (3)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원고는 반드시 A4용지에 출력하여 보내주십시오. (팩스, 이메일 원고는 받지 않습니다.)
- (4) 모든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최 : 서울교회
주관 : 서울교회 출판국 (순례자)

■ 신간 안내 ■

- 시편 III권 출간 -



이종윤 목사의 역작 시편 III권이 발간되었다. 본 권은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시편 시리즈를 마무리 한다. 가격은 16,000원으로 시중 서점이나 우리교회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2일(목) 한국 장로교 신학회 월례 발표회, 제7회 한국 군선교 신학 심포지움을 각각 소집하고 기조강연을 한다. 또한 제16회 군종목사 양성훈련 세미나에서 특강을 한다.
- 특남: 3교구 한상욱 집사, 손영희 집사 가정 특남 4/4(수)
- 주간 식당 봉사: 엘리야 선교회(4.8) 모세선교회(4.15)
- 금주의 식사 : 박두호 장로 한성욱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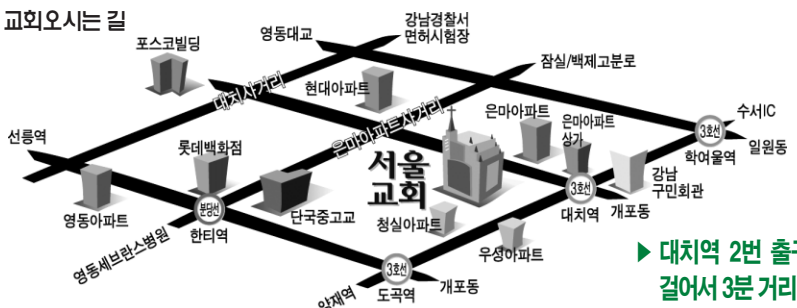
구분	시 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00만인 전도운동에 나도 동참하도록
2. 일천명 성경통독대열에 나도 참여하도록
3. 서울성경대학·주부대학·살림경로대학 열린프로그램 들을 위하여
4. 목회자 신학세미나, KIMCHI 세미나 위하여

■ 교회외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